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기억해 보면 어느 한 해도 태풍 없이 지나간 여름은 없었다. 한해 평균 세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

첫 번째는 고풍(苦颯)이다. 마음(心)과 뜻(志)을 고통스럽게(苦) 하는 정신적인 우환이다. 고풍의 우환은 돈과 지위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 피해 갈 수 없는 우환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올해 여름은 정말 더운 것 같아"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열니노'가 어떨고 '라니냐'가 어떨다고 하면서 다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스페인어 격언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원 딸린 집(garden-home)인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지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기고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적어도 남겨진 자들은 의식을 치르면서 그제야 죽은 자에 대해 집중하고 회상과 회고를 거듭해 곁날 기억으로 남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후 남겨진 우리들은 '구명'과 '책임'이라는, 사자로부터 던져진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사건의 주변만을 맴돌고 있다.

일본작가 미야모토 테루는 '환상의 빛'과 '등대'에서 '죽음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이야기한다.

남편의 자살을 이해할 수 없던 아내는 자책하면서도 살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생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기도 한다.

두 번째는 노풍(勞風)이다. 근육(筋)과 뼈(骨)를 수고롭게(勞) 하는 육체적 우환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만나는 우환이다.

세 번째는 아풍(飢風)이다. 몸(體)과 피부(膚)를 굶주리게(飢) 하는 재정적 우환이다. 인생에 가장 자주 만나는 견뎌내기 힘든 우환이다.

맹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우환의 태풍을 정신(mentality), 육체(health), 재정(finance)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반전의 한마디를 던진다.

넣어 더욱 큰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폭풍이 몰고 온 바람은 대기를 순환시키고, 폭우가 내린 곳은 대지를 더욱 굳게 만든다.

사마천은 궁형(宮刑)이라는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 '사기' (史記)를 완성하였고,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는 태풍을 만나 악성(樂聖)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태풍도 형성, 발달, 극성, 소멸이라는 주기가 있다는 것이다. 작게는 다탄, 길어야 열흘이면 결국 태풍은 소멸된다.

기후 위기와 공감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집중해야 한다. '함께'라는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나'와 '너'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도 내재해 있다.

솔직히 이 질문이 불편하다. 공감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 후에 오는 것들

의 흔적을 통해 남편과 조우한다. 남편은 죽은 후 비로소 아내의 마음속에 살게 된 것이다.

또한 최신작 '등대'에서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돌연 과로사하자 상실감에 빠진 중년 남성을 내세운다. 독서가 유일한 취미인 그가 '신의 역사'의 갈피에서 생전에 아내가 날아든 의문의 염서와 조우하게 된다.

죽음의 형태 중에서 자살은, 하나의 또 다른 삶의 형태가 된 지 오래다.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올려 본다.

다음은 남편이 아내의 가치관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익숙한 것으로 향하게 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내 삶을 독이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태오 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제시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 어떻게 공감할 것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 삶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혹시 내 편안함이 자연과 세상을 더럽힌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지? 이 포기는 불편할 것이다.

社說

다시 고개 드는 예식장 횡포 근절 대책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웨딩업체들의 바가지 횡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웨딩업체, 웨딩 플래너 등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웨딩업체가 꽃장식 항목 등으로 500만 원의 추

가 요금을 요구해 지불했지만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결혼 김 모(29) 씨는 결혼 컨설팅을 받고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웨딩 플래너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며

사실 예식장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은 소비자에게 '스드메'를 강제할 수 없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감 동창 채용 위해 점수 조작했다니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 모 전 감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에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A 씨는 작년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 위원에게 직접적으로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데 A 씨는 지난해 8월 다섯 명이 응시해 진행된 면접 점수에서 유 전 감사관이 221.5점, 3위로 나타나자 평가 위원들에게 수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해 2위로 올라섰다. 그 결과 정식 채용된 유 전 감사관은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다가 올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담당자가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작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에도 인사 담당자가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無等鼓

어떤 아파트를 가더라도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 정도 놓여 있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 된 지 오래다.

택배(宅配)는 한자 그대로 '집까지 배달해 준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애초 일본에서는 음식 같은 종류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일컫었지

기록상으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택배 대상은 평양냉면이다. 조선 영·정조 시대 유흥자 황윤석(전북 고창 출생, 1729-1791년)은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 1768년 7월 7일자에 "과거 시험을 본 다음날 점심에 친구들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적었다.

귀중한 학술 자료로 평

8월 14일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 근대 개념의 택배가 들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1992년 한진이 국내에서 최초로 '파발마'라는 택배 브랜드를 선보였다.

사들은 과로사가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일 정도로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 이때문에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지는 취지로 2020년부터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